



정읍시 공무원들,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정읍시 고부면사무소와 시청 종합민원과 직원 20여 명은 지난 9일 오디 수확시기를 맞아 고부면 신중리 오디 재배농가를 방문해 일손 돋기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돋기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디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 도구와 생수, 간식 등도 직접 준비했다. /정읍=길대환 기자



임실 신덕면 오염토양 대책위 결산보고·화합의장

임실군이 신덕면에서 오염토양 문제 대책위원회 결산보고를 갖고 마무리 짓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난 10일 진행했다.

2018년부터 지속되어온 신덕면 오염토양시설 문제로 신덕면민들은 그동안 오염토양 대책위를 구성, 군과 함께 오염토양시설 폐쇄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작년 오염토양시설 폐쇄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설 폐쇄로까지 이어졌다.

대동화합 한마당 행사는 그 결과에 대한 결산보고 및 대책위 운영에 대한 미무리를 위한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유물 수집·기증 운동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024년 개관하는 국립소방박물관 전시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은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근대 개항 이후 1980년대까지 소방관련 역사자료 및 유물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량에서 소방관련 문헌, 의복, 사진, 작은 배지까지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증자는 기증증서 발급·주요 행사 초청·명예의 전당을 통한 기증자 명단수록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 기증운동' 클릭후 '소방유물기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백종현 군산보건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코로나19 대응 유공 공무원 선정… 군산시보건소 유공자, 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받아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백종현 보건소장이 코로나19 대응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백 소장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즉시 군산시방역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됐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관리 총괄 담당자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속한 감염병 신고체계와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와 확진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보건소는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사회 보건사업과 국민건강유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신한 유공자 5명도 국무총리(△시민건강계장·나정심) 및 장관 표창(△의약계장·강민정·△의약계원·신지윤·△당북보건진료소장 김수진·△감염병관리 이승반·송신성)을 각각 수상했다.

백 소장은 지난 1996년 7월부터 군산시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의료인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비상방역반과 신속대응 역학조사반에 헌신해온 시장님과 방역 활동에 동참해 준 전청원 여러분, 누구보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온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환경 조성에 노력했으며, 더불어 전라북도 보건소장 협의회장으로 도내 감염관리 험라인 비상체제를 유지, 14개 시군이 코로나19 예방역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태시군 간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밝힐하고 N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이바지해 온 바 그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백 소장은 "그간 365일,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을 함께해온 시장님과 방역 활동에 동참해 준 전청원 여러분, 누구보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온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김제시 검산동, 김제 愛 주소갖기 운동' 흥보

김제시 검산동(동장 이진우)은 지난 9일 검산동 지역발전 협의회를 대상으로 '김제 愛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산동은 김제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전입을 장려하고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에게 전입장려금, 청년주택수당, 결혼축하금 등 전입·청년·결혼출산 혜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내 고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김제시 인구감소 위기를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였다.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한남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인구늘리기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도 김제시 인구감소 문제에 힘을 보태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 성료

남원시가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기업 전환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아카데미는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이해 △선배 사회적기업인과의 만남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초 계획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특히 마지막 날 진행된 선배기업 사례는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예비 단계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단계별 성장정책에 따른 생생한 경험 및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현장감을 더했다.

이번 과정의 한 수료생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세한 정보와 사례를 알게 되어 만족했다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가치가 분명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안순엽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개선 의견들을 종합해 후속 컨설팅을 실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예비 그룹 양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농협·산림조합, 보행자 사고예방 협력

무주경찰서(서장 빙중식)에서는 농협(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군산림조합과 보행자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물품(형광조끼) 구매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보·이·고'(보행자, 이륜차, 고령자) 특별 교통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무주군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조합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연차적으로 형광조끼 구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 10일 임실읍 두만마을회관 앞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에도 야외활동이 많아진 시기 어르신 대상으로 보행자, 전동의자차 등 최근 관내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및 야간 외출시 옷 입으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롤파스와 형광 팔토시를 배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